

## 일한관계

—  
 일한중 외교장관회의  
 일한 외교장관회담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64 Tel 02. 765. 3011~3

HP [www.kr.emb-japan.go.jp](http://www.kr.emb-japan.go.jp) 페이스북 [j.munwhawon](https://www.facebook.com/j.munwhawon) 트위터 [JapanEmb\\_KoreaK](https://twitter.com/JapanEmb_KoreaK)

Photo: Kazuhisa Ishikawa

撮影協力：真言宗総本山 教王護国寺 東寺(世界遺産、京都)

## 일한중 외교장관회의

3월 21일(토) 오후 5시 10분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에서 일한중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참석자: 기시다(岸田) 외무대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장),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외). 또한 회의 종료 후, 공동보도발표가 있었다.



### 일한중 협력

일한중 3국 외교장관은 각 분야에서 3국 협력이 착실히 진전되고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한중 협력사무국(TCS)의 3국 협력 촉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아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안건의 형태와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1) 3국 외교장관은 방재, 환경, 청소년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추진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공유했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방재 분야와 관련해서 지난번 센다이(仙台)에서 열린 제3차 유엔방재세계회의를 소개하면서, 중국 및 한국의 참가를 평가하는 한편, 일한중 방재관계각료회의 개최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기시다 외무대신은 일한중 FTA,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2) 3국 외교장관은 새로운 중동정책협의를 세우고, 테러대책협의 및 아프리카정책협의를 조만간 재개할 것에 일치했다. 또한 기시다 외무대신은 원자력 안전분야에서 3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한국 및 중국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양국과의 협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지역·국제정세

#### (1) 동북아 정세

3국은 북조선(북한)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아베 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문제에 대해 한국 및 중국의 협력을 구했다.

#### (2) 동아시아 협력

기시다 외무대신은 올해로 설립 10주년이 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강화 중요성과 ASEAN 공동체구축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나아가 3국은 지난해 베이징 APEC의 성과와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올해 필리핀에서 열리는 APEC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 (3) 테러 대책·중동(ISIL)

기시다 외무대신은 ISIL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가운데, 각국의 강점을 살린 공헌으로 연계한 다면적, 장기적 대응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기시다 외무대신은 일본은 인도적 지원의 확충, 테러대응 능력의 향상 지원, 과격주의를 창출하지 않

는 사회의 구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4) 핵 군축

기시다 외무대신은 올해가 피폭 70주년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금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운용검토회의를 성공시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방향성 제시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 일한중 정상회의

3국은 가장 빠르고 편한 시기에 일한중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지금까지 일한중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중시해 온 일본의 입장을 밝히고, 일한중 외교장관회의 개최로 일한중 협력의 모멘텀이 높아졌을 때, 중국 및 한국과 협력해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 기타

일한중 외교장관회의 중에 역사문제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고, 일본측에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양국간 회담을 포함해 여러 자리에서 언급해온 바와 같다고 말했다.

## 일한 외교장관회담



3월 21일(오전 11시 35분부터 약90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이 윤병세 외교부장과 일한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배석자 : 일본측 벳소 코로(別所浩郎) 주한일본대사,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심의관 외, 한국측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외). 서두에 기시다 외무대신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로고가 새겨진 고향 히로시마산 주걱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발행 예정인 기념우표를 윤병세 장관에게 선물했다.

1.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기시다 외무대신이 취임 후 한국에서 가진 첫 회담으로 일한관계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는 양 장관은 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해, 계속 다양한 차원의 의사소통을 거듭하기로 확인하고, 양 장관 사이에 긴밀히 소통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재차 윤병세 장관의 방일을 요청했고, 차후 적절한 시기에 조정해 가기로 했다.
2. (1)서두에 윤병세 장관은 기시다 외무대신의 방한을 환영하며, 튀니지에서 발생한 충격 테러 사건으로 일본인 희생자가 나온 데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윤병세 장관은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올해를 새로운 양국관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기시다 외무대신은 튀니지 충격 테러사건과 관련해, 윤병세 장관이 위로의 뜻을 표명하며 메시지를 전달한 데 대해 감사를 표명한 후, 일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 보여준 윤병세 장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일한 양국 간에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일한관계의 강화는 양국에게 이익이 되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3. 양 장관은 올해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이 뜻 깊은 해가 되도록 협력해 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50주년 기념 행사, 양국 학회가 진행하는 공동연구 심포지엄, 한일축제한마당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4. 양 장관은 가까운 시기에 젊은 외교관을 상호파견하고 안보, 경제, 인적교류 분야에서 더욱 협력해 가기로 했다. 안보보장분야에서는 일한안보대화(외교, 국방 국장급 ‘2+2’)의 조기 개최를 위해 조정해 가기로 했다.
5. 양 장관은 ‘구 민간인 징용공’ 관련 재판, 산케이신문 전서울지국장 기소를 둘러싼 문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일한중 협력, NPT 운용검토회의 같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6. 북조선(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 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되는 것은 결단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일한, 일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확인했다. 또한 납치, 이산 가족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인했으며, 윤병세 장관은 납치문제에 관한 일본의 노력에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

## 기시다 외무대신 일한인재교류회 참석



3월 22일(오전 9시 50분부터 약30분간),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일한인재교류회’에 참석하여 일한 양국 청년 1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벳소 코로(別所浩郎) 주한일본대사와 사토 마사루(佐藤勝)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등 관계자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특히, JENESYS 2.0 주한일본대사관 파견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청년 방일연수단 학생들도 참가하여 방일연수와 홈스테이 경험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인사말을 통해 ‘양국 관계는 매우 중요하여 일한 관계의 강화는 두 나라의 이익인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요하다. 이 지역의 국가 및 국제사회가 양국에 기대하고 있다. 일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크며,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마쓰야마시와 평택시 우호도시교류

마쓰야마시 산업경제부 관광·국제교류과

## 우호도시제휴 체결 경위

에히메현 마쓰야마시(愛媛県 松山市)와 경기도 평택시는 우호도시제휴 10년 전부터 두 시의 시민단체에 의한 학생 상호교류사업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교류해 왔다. 2000년 세미나에 마쓰야마시 직원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행정차원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2003년 9월 김선기 평택시장의 마쓰야마시를 방문했고, 2004년 7월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広) 마쓰야마 시장이 평택시를 방문하여 두 시의 우호교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4년 10월 25일, 송명호 평택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마쓰야마시를 방문하여 우호도시제휴에 서명했다.

## 마쓰야마시와 평택시의 교류

마쓰야마시와 평택시 간의 우호도시제휴 체결 이후 스포츠, 문화, 청소년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었다.

매년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중학생 상호파견사업에는 두 시의 중학생이 상호 방문하여 홈스테이와 문화체험을 통해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와 학생간의 우호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두 시를 대표하는 스포츠 이벤트인 마쓰야마시 '에히메 마라톤'과 평택시 '평택항 마라톤 대회'에 시민 주자를 상호 파견하며 마라톤 교류를 하고 있다. 두 시의 교류를 시민 차원에서 지탱하는 추진 모체로서 마쓰야마시에서는 2004년 11월 '마쓰야마·평택우호협회'가, 평택시에는 2008년 4월 '한일우호교류협회(현재, 평택국제교류협회)'가 각각 설립되었다. 두 단체에서는 회원들이 상대 시를 방문하여 홈스테이와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등 시민차원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쓰야마 평택우호협회에서는 한국어강좌와 한국문



우호도시제휴 10주년 기념으로 마쓰야마시를 방문한 평택시 대표단



노시 가쓰히토(野志克仁) 마쓰야마 시장과 공재광 평택 시장



평택시를 방문한 마쓰야마시 중학생



마쓰야마 · 평택우호협회, 시민에게 한국문화를 소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인 도고온천 본관



평택항과 이어지는 서해대교

#### 문의처

• 마쓰야마시 산업경제부 관광국제교류과  
Tel : +81-89-948-6887  
Fax : +81-89-943-9001  
e-mail : kanko@city.matsuyama.ehime.jp

화세미나 등 공 들인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에서 평택시를 소개하여, 더 많은 마쓰야마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우호도시제휴 10주년 기념사업

마쓰야마시와 평택시의 우호도시제휴 10주년 기념으로 2015년 2월 공재광 평택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19명과 평택국제교류협회 방문단 22명이 마쓰야마시를 방문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마쓰야마 평택우호도시제휴 10주년 기념 축하회’에는 주 히로시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김 홍익 부총영사, 에히메현 조코 도시후미(上甲俊史) 부지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도시제휴 10주년을 성대히 축하하는 동시에 두 시의 우호의 정을 재확인했다. 또한 평택시대표단은 마쓰야마시의 가와하라(河原) 파티시에 · 의료 · 관광전문학교를 방문했다. 이 학교는 2014년 평택시 한국관광고등학교 학생이 수학여행으로 마쓰야마시를 방문했을 때, 떡메치기, 유카타 입어보기 체험 등을 통한 학생간 교류가 인연이 되어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것이다. 평택시대표단 일행 학생들은 한국어로 학교를 소개하고 꽃꽂이와 과자 만들기 체험을 하며 교류를 돈독히 했다.

또한 에히메 마라톤에 평택시에서 6명의 주자가 참가했는데, 출발 시 공재광 시장이 붓짚 열차(坊っちゃん列車)를 타고 주자에게 손을 흔들며 응원했다.

#### 앞으로의 교류

마쓰야마시와 평택시는 10년간의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마쓰야마와 한국간에 항공편도 취항하고 있어, 앞으로는 두 시의 시민에게 서로의 시에 대해 널리 알리는 동시에, 시민차원에서 교류의 폭을 넓히고 교류인구 확대에 노력하고자 한다.

#### 마쓰야마시 소개

마쓰야마시는 일본의 서부, 시코쿠(四国) 지방에 있는 에히메현(愛媛県)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현청 소재지이자 인구가 약52만명인 시코쿠 최대 도시다.

시내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인 도고온천(道後温泉)과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마을의 상징적 존재인 마쓰야마성(松山城), 세토(瀬戸) 내해에 펼쳐지는 섬들의 아름다운 풍경 등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살린 관광업이 기간산업이 되어 연간 약565만명의 관광객이 일본 국내외에서 찾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직항편(주3편(일, 화, 금))으로 약1시간 40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우며 특히 겨울철 온천을 즐기는 관광객이 다수 찾고 있다.

마쓰야마시 <http://www.city.matsuyama.ehime.jp/index.html>

#### 평택시 소개

평택시는 경기도 남부의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8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45만명이다. 평택항은 동북아 무역과 유통의 중심으로 자동차 취급량은 한국 제1위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의 첨단산업공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첨단산업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외로 넓은 과수원과 논밭이 이어진 농촌 풍경도 보이며, 평택 쌀과 배의 산지로도 유명하다.

평택시 <http://www.pyeongtaek.go.kr/New2012/>



## 한국과의 새로운 만남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야마사키 히로키(山崎宏樹)

2015년 2월말부로 전임 고지마 히로유키(小島寛之)의 뒤를 이어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신임 소장으로 부임한 야마사키 히로키(山崎宏樹)입니다. 주한일본대사관이 발행하는 ‘일본의 새 소식’을 통해 인사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의 서울 근무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3년까지 6년 6개월 동안 이곳 서울문화센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예전 근무 시에는 문화예술교류사업을 담당했지만, 이번에 소장 취임을 계기로 일본어, 일본연구·지적교류분야 등 다양한 사업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새로운 만남에 기대가 큼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가며, 보다 나은 일한관계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2007년 첫 부임과 비교해 보면 최근의 순탄치 않은 일한관계로 인해 양국의 문화교류 촉진을 사명으로 하는 서울문화센터를 둘러싼 상황이 일변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어 교육을 예로 들자면, 일본국제교류기금이 2009년 실시한 해외일본어 교육기관조사에서 당시 한국은 일본어 학습자수 96만명으로 세계 1위를 자랑했지만,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2012년 한국 중등교육부문에서의 신교육 과정 적용 등의 흐름 속에서 같은 해 실시한 동 조사에서는 84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본어 교육 부문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약력

|                    |                     |
|--------------------|---------------------|
| 1992년 3월           | 홋카이도대학 법학부 졸업       |
| 1992년 4월           | 일본국제교류기금 입사         |
| 1998년 8월~2002년 3월  | 상파울로 일본어센터 주간(主幹)   |
| 2007년 6월~2013년 11월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부소장 |
| 2015년 2월~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



그렇지만 2015년은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서 새로운 양국관계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양국의 보다 진전된 협력관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한 간에 문화교류·민간교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저희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 간에는 상호교류를 위한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도 이러한 채널의 하나로서 일본정부로부터 한 발 떨어진 독립행정법인이라는 입장에서 정치·경제적 영향에 구애되지 않고,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일한 양국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우호적일 때 비로소 문화교류사업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일한문화교류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욱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한 양국이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표어와 함께 기념 로고를 발표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로서, 일본국제교류기금도 향후 50주년의 의미를 언제나 명심하면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는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일한간의 다양한 교류채널을 확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문화센터는 일한관계의 미래를 짚어지고 나갈 차세대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등 양국의 공동 목표 아래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고, 차세대·중견세대를 중심으로 폭 넓은 분야에서 일한 네트워크와 동반자 관계의 구축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침 아래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는 50주년을 기념하는 몇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일본의 국립신미술관과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Artist File 2015 Next Doors: Contemporary Art in Japan and Korea’전으로 일본국제교류기



금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함께 협력하여 이 전시행사를 진행합니다. 본 전시는 우선 일본의 국립신미술관에서 개최한 후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2월 14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과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현대미술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방문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LG아트센터와 일본의 호리프로가 공동 개최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 ‘해변의 카프카’ 연극공연이 2015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7월 이후 한국영상자료원과의 공동주최로 일본영화사를 개략적으로 조명해 보는 영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전시, 공연, 영화 등 각 분야에서의 중심사업 외에도 다양한 문화부문에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문화센터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문화정보실 운영을 통해 일본과 관련한 서적, 잡지, DVD 등을 일한 양국어로 다수 소장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방문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과의 새로운 만남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다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기쁨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 또한 절감하고 있으며, 일한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시는 양국 관계자 분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전진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이와테의 벚꽃

세계문화유산 히라이즈미(平泉)와 명품소 마에사와(前沢) 소고기의 고장 이와테현. 생소하고 낯선 지역인데다 직항편이 없어 한국인에게 더욱 멀게 느껴지는 이와테현은 홋카이도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식량자급률이 100%가 넘는 정도로 먹거리가 풍부하며, 농산물을 비롯하여 고기, 해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별미를 먹으며, 눈으로는 이에 어울리는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와테에는 봄을 알리는 벚꽃 명소가 많다.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몸도 마음도 포근해지는 이 계절, 매력 넘치는 이와테현의 벚꽃을 소개한다.

### 기타카미시 덴쇼치

기타카미(北上) 강변에 위치한 덴쇼치(展勝地)는 일본 동북지역 유수의 벚꽃 명소로 유명하다. 아오모리현 히로사키(弘前) 공원과 아키타현 가쿠노다테(角館)와 더불어 동북지역의 3대 벚꽃 명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일본의 100대 벚꽃 명소로 선정된 곳이다. 강변을 따라 수령 90년 이상의 왕벚나무 500그루 이상이 2km에 걸쳐 벚나무 터널을 연출하고, 150종류 이상의 벚꽃이 293ha부지 내에 1만 그루나 있어, 4월 중순에 피는 왕벚나무를 시작으로 5월 초순까지 다양한 벚꽃이 그 아름다움을 뽐내며, 그 외에도 10만 그루의 진달래들이 벚꽃과 더불어 장관을 이룬다.

벚꽃 축제 기간 중에는 남부번(南部藩) 시대의 쌀 창고를 본떠 만든 레스트하우스에서 기타

#### 기타카미 덴쇼치 벚꽃 축제

기간 : 4월 15일~5월 6일

교통 : JR기타카미 역에서 도보 20분 또는

에사시버스터 행 또는 구마자와(熊沢) 행  
버스로 15분 '덴쇼치' 하차

홈페이지 <http://sakura.kitakami-kanko.jp/index.html>



카미의 명물인 고로케와 각종 토핑을 얹은 여러 종류의 찹쌀떡 요리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판매되는 축제 음식이 분위기를 더욱 북돋아 준다. 벚꽃이 터널처럼 드리워진 길 양쪽으로 관광객을 위한 마차가 달리고, 강변에는 나룻배가 운행하고 있어 배를 타고 유유히 강바람을 맞으며 벚꽃을 즐길 수 있다. 밤이 되면 공원 전체에 벚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명이 켜지고, 늦은 시간까지 밤 벚꽃을 즐기는 커플이나 가족들로 넘쳐난다.

### 이시와리자쿠라

이시와리자쿠라(石割桜)는 모리오카시(盛岡) 지방재판소 앞에 있는 벚나무로 둘레 21m, 높이 1.7m의 거대한 화강암을 깨고 그 틈에서 자라난 직경 약 1.35m, 높이 약 10m, 수령 360년이 넘는 벚나무다. 지방재판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가옥의 정원이었던 곳으로 거대한 바위가 낙뢰를 맞아 금이 가자, 우연히 벚나무 종자가 그 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2년 모리오카지방재판소의 화재로 벚나무의 일부가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전소되는 상황은 피해 이듬해 봄, 다시 꽃을 피웠다. 화재가 발생하자 정원사인 후지무라 씨는 자기가 입고 있던 가운을 물에 적서 나무를 보호하는데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젖은 바위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입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에피소드가 유명하다. 192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눈에 띄게 수세가 나빠지자 2000년 봄부터 50년만에 나무의사의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매년 4월 중순이 지나면서 만개하는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이와테현에 온 이들이라면 누구나 찾아보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교통 : JR모리오카역에서 도보 15분,  
도심순환버스로 약 8분(추오도오리 1초메 하차)  
홈페이지 <http://www.odette.or.jp/>



### 잇폰자쿠라

고이와이농장 마키바엔(小岩井農場 まきば園)은 전체 부지가 약 900만평에 달하며, 젖소 사육시설 이외에 모두 일반 공개되는 곳이다. 이와테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동심으로 돌아가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과 액티비티한 체험이 가능하다. 동물과 교류하면서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맛있는 유제품을 맛볼 수 있어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놀거리와 즐길 수 있는 것이 풍부하다.

이 부지 안에 수봉으로 꼽히는 이와테산을 배경으로 고이와이 농장의 녹색 대지에 뿌리를 내린 한 그루의 벚나무가 바로 잇폰자쿠라(一本桜)다. 마키바엔에서 약 1.5km 떨어진 목초지에 위치하며, 정확한 수령은 알 수 없지만 약 100년 전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벚나무가 심어진 곳은 현재, 소 먹이인 풀을 수확하기 위한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방목지였다. 소는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의 강한 햇빛에서 소를 보호하기 위한 그늘목으로 심어졌다고 한다. 뒤 편으로 벽화처럼 서 있는 잔설이 남아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이와테산과 목초지의 짙푸른 녹색 그리고 높이 20m의 벚나무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피크를 이루며,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풍경을 연출하여 셔터를 누르는 대로 한 장의 그림엽서가 된다.

벚꽃이 만개한 봄 외에도 눈 덮인 별판과 순백의 이와테산 그리고 우뚝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자아내는 겨울 풍경 역시 절경이다.

(협력 : 북도호쿠 3현 홋카이도 사무소)

개화시기 : 4월 하순~5월 초순  
홈페이지 : <http://www.koiwai.co.jp/makiba/sakura/>

## 여름 스키와 신칸센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야마가타현

야마가타현(山形県)은 일본 동북지방의 서쪽에 위치한다. 바다 쪽으로는 쇼나이(庄内) 평야가 위치하여, 맛있는 쌀과 과일 등이 풍부하고, 또한 유명한 산들이 위치하고 있어 일본내의 관광객은 물론 한국의 트래킹 매니아들이 많이 찾는다. 현 내에는 국제항공편이 운항 되고 있지 않으나, 인근 미야기현(宮城県), 아키타현(秋田県), 니가타현(新潟県)에서 국제항공을 이용해 야마가타현으로 올 수 있다. 야마가타현의 중심부를 여행할 경우에는 센다이(仙台) 공항, 쇼나이 지방을 여행할 경우에는 아키타 공항과 니가타 공항의 항공을 이용하면 된다. 아키타 공항에서 쇼나이까지 차로 3시간 정도, 센다이 공항에서 야마가타시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내 몸에 맞는 온천을 찾자

야마가타현은 35개의 전 시정촌(市町村)에서 천연온천이 솟아나 ‘온천천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온천이 많은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다. 탄산수소나트륨 수질로 피부병과 피부미용에 효과가 탁월한 히지오리(肘折) 온천, 동맥경화와 만성피부염에 효과가 좋은 시라부(白布) 온천과 덴도(天童) 온천, 유황과 산성이 강한 온천으로 고혈압, 당뇨병, 부인병, 그리고 미백 효과가 있는 자오(蔵王) 온천 등 여행자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온천을 찾아 여행의 피로를 풀면서 온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효능이 있는 온천 이외에도 긴 역사를 가진 온천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긴잔(銀山) 온천은 일본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오래된 목조 건물로 일본의 옛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천가를 밝게 비추는 가로등도 가스등을 사용하고 있어 온천의 옛스러움을 더한다. 요즘은 일본 국내 여행객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태국 그리고 한국인 개인 여행객들도 긴잔온천을 많이 찾는다.

### 문의처

- 야마가타현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3 두비빌딩 3층 303호  
02-725-9074 / [www.yamagata.or.kr](http://www.yamagata.or.kr)
- 야마가타현 관광사이트  
(야마가타로의 여행 山形への旅)  
[www.yamagatakanko.com](http://www.yamagatakanko.com)

###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스키를 즐기자

야마가타현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겨울에 스키를 즐기러 여행하는 사람이 많다. 자오온 천 스키장은 일본 최대급 스키장으로 거대한 수빙(樹氷)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는 주호겐(樹氷原) 코스를 비롯해, 변화가 많은 12개의 코스, 14개의 켈렌데(스키 연습장)가 있어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만족할 수 있다. 스키장 인근에는 온천가가 있어 스키를 타고 난 후의 피로를 풀 수도 있다. 갓산(月山) 스키장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 폐쇄되었다가, 눈이 어느 정도 녹은 다음 4월에 개장한다. 4월부터 7월까지만 스키를 탈 수 있다. 일본 100대 명산 중 하나인 갓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안에서 여름 스키를 즐기는 것은 갓산 스키장이 자랑하는 매력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볼 때 여름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나라 중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한국 스키 매니아들이 매년 여름스키를 즐기러 갓산 스키장을 방문한다.

### 식도락 천국 야마가타

야마가타현은 1년 내내 많은 종류의 과일을 생산한다. 특히 사쿠란보(앵두)는 일본 전역의 생산량 70%를 생산하고 있어, 야마가타의 대표적인 과일이다. 사쿠란보 철이 되면 농장에서 사쿠란보 따기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물론 고급과일인 사쿠란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어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사쿠란보 이외에도 라프랑스, 사과, 포도, 감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1년내내 맛 볼 수 있다.

쇼나이 평야는 야마가타현의 젓줄로 불리는 모가미강(最上川)이 흐르고 있어, 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쓰야히메(つや姫), 하에누키(はえぬき) 등 우수한 품종의 쌀들이 생산된다. 특히 쓰야히메는 10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생산된 종으로 쌀알이 크고 단 맛이 있어, 일본 곡물검정협회의 음식 맛 랭킹에서 최고인 특A를 받았다. 과일과 쌀 이외에도 소바, 이모니(토란탕), 일본 3대 외규 요네자와규(米沢牛), 브랜드 돼지고기 산젠돈(三元豚), 쇼나이 바다에서 잡히는 풍부한 해산물 등 풍부한 식자재로 맛있는 일본 음식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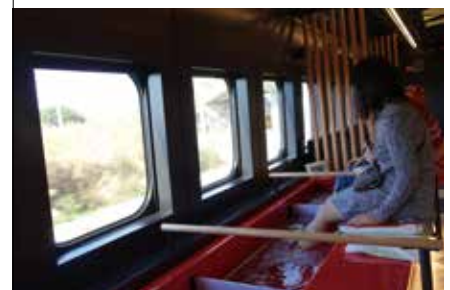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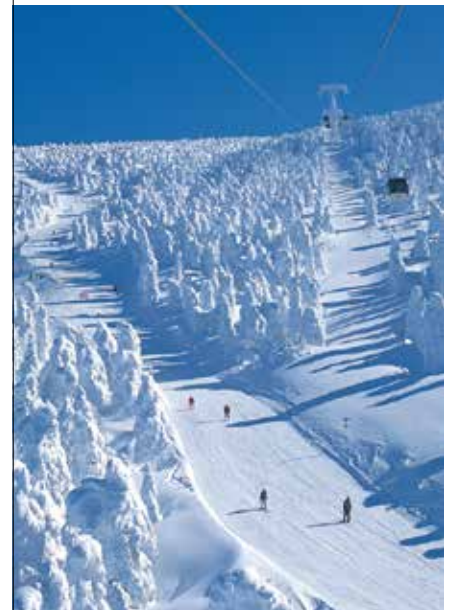
### 일본의 산악신앙 데와삼산

야마가타현은 토지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유명한 산들이 많다. 그 중 데와삼산(出羽三山)은 하구로산(羽黒山), 갓산(月山), 유도노산(湯殿山)을 일컫는 통칭이며 이 각각의 산은 현재, 과거, 미래를 의미하고 있어 사람들은 이 모두를 순례하는 것을 윤회(輪廻)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관동지방에서는 일생에 한번 삼산을 참배하는 것을 오랜 염원으로 생각할 정도로 신성시 되어 많은 사람들이 수행과 참배를 목적으로 이 길을 걷고 있다. 데와삼산 중 하구로산은 수령 350년~600년의 거대한 삼나무가 늘어진 참배길이 유명한데, 이곳은 미술관 그 린가이드에서 별3개를 받을 만큼 경관이 뛰어나다. 데와삼산 이외에도 일본 100대 명산인 초카이산(鳥海山), 이데산(飯豊山), 아즈마산(吾妻山)이 있고, 자오 스키장으로 유명한 자오산도 겨울에는 스키와 설산 트레킹, 여름에도 울창한 숲을 오르는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 족욕 신칸센을 타고 야마가타로

일본철도기업인 JR에서 야마가타 테스트네이션 캠페인을 기념해, 이색적인 신칸센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열차이름은 도레이유 쓰바사(とれいゆ つばさ). 도레이유 쓰바사는 JR 첫 리조트 신칸센으로 일반 신칸센과 달리 열차 안에서 족욕을 즐길 수 있다. 신칸센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족욕을 즐기고, 족욕탕 옆에 준비되어 있는 다다미석에서 여행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바 카운터에 준비된 야마가타현 특산 사케와 음료, 디저트도 맛 볼 수 있다.

(협력 : CLAIR, Seoul)





## 일본의 위스키

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広報部門

### 닛카 위스키

지난 반년간 일본의 아침은 온통 ‘재패니스 위스키’로 화제였다. NHK가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영하는 TV 드라마에서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로 불리는 일본인과 그의 스코틀랜드인 아내가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케쓰루 마사타카(竹鶴政孝)는 일본 사케를 만드는 술도가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맛있는 진짜 위스키를 일본에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24살 때 혼자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고생 끝에 위스키 제조기술을 습득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인 ‘리타’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일본에서 진정한 위스키를 만들고 싶다’는 다케쓰루에게 리타는 ‘나는 당신의 꿈을 함께 하며 도와드리고 싶어요’라며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온다. 귀국 후 다케쓰루는 일본 최초의 몰트 증류소 건설에 주력하여 초대 공장장에 취임한다. 1934년 스코틀랜드의 기후 풍토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홋카이도의 요이치(余市)에서 대일본 과즙주식회사(현, 닛카 위스키 주식회사)를 세우고 이상적인 위스키 제조에 분투한다.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다케쓰루가 찾던 ‘진짜 위스키’의 맛은 현재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퓨어 몰트 위스키 ‘다케쓰루 17년 퓨어 몰트’는 위스키의 국제적 콘테스트 ‘월드 위스키 어워드 2015(WWA)’에서 ‘월드 베스트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를 수상하며 ‘세계 최고상’인 퓨어 몰트 위스키로 인정 받았다. 심사는 각국 양주전문가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심사위원으로부터 ‘모든 위스키 중에서도 향과 맛에서 최고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인터내셔널 스피리츠 챌린지(ISC)에서 지난해 과거 최다인 8개 상품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닛카 브랜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국내외에서 주목 받고 있는 닛카 위스키지만 홋카이도(北海道)와 미야기현(宮城県)에 위스키 공장이 있다. 그곳에서는 품질에 심혈을 기울이는 제조공정을 견학하거나 몇 가지 위스키를 시음할 수 있다. 공장에는 연일 관람객이 몰려 지난해 연간 견학자수는 사상 최고인 67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그 기록을 넘는 속도로 추이하고 있다. 위스키의 맛뿐만 아니라, 사계절 자연 속에 세워진 증류소 모습도 그 인기의 이유다.

현재, 한국에 있는 호텔 바 등에서는 홋카이도 요이치 증류소에서 만든 ‘요이치’나 블랜드 위스키 ‘쓰루 17년’을 맛 볼 수 있다. ‘요이치’는 석탄직화 증류법이라는 현재 세계에서 드문 제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일에 종사한 지 수십 년 된 장인들이 불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증류하는 이 제조법은 향기가 풍부하고 강한 맛의 위스키를 만들어 낸다. 또한 ‘쓰루 17년’은 닛카 위스키 블렌더에 의해 섬세한 기술로 만들어진 원숙하고 깊은, 고소하고 향긋하며 신선한 목 넘김이 좋은 매력적인 위스키다.

끝으로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는 위스키 마시는 방법을 한가지 소개한다. 5년 전부터 일본의 대중적인 술집에서는 위스키에 소다나 진저에일 등의 탄산을 섞어 상쾌하게 마시는 기분을 즐기는 ‘하이볼’이라는 방법이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요즘은 술집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캔 하이볼이 눈에 띄게 되었다. 앞으로는 한국의 거리에서도 하이볼을 더욱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 막걸리와 사케의 만남 개최

3월 4일(수)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인 ‘막걸리와 사케의 만남’이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약50여 종의 다양한 전통주가 전시되어, 양국의 주조업 관계자는 물론이고 한국의 여야당 인사들과 일본 각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를 위해 히로시마 등 일본 각지의 양조장에서 직접 한국을 찾아 주었고, ‘미스 사케 2015’ 오가와 사치에(小川佐智江) 씨도 참가하여 일본 사케의 매력을 전했다.





## C-Festival 2015, ASIAMANIA

비즈니스, 문화, 관광, 쇼핑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와 무대 공연, 체험 이벤트가 열리는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4월 30일(목)부터 5월 3일(일)까지 코엑스 A홀에서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가하는 'ASIAMANIA'가 열린다. 일본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이 참가하는 식품, 엔터테인먼트, 관광, 기업 소개 등의 부스도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일본전통놀이체험, 유카타 입어보기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일시 4월 30일(목)~5월 3일(일)

장소 무역센터 및 영동대로

주최 무역센터 MICE클러스터 위원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한중국대사관, 주한러시아대사관, 한국관광공사

문의 주식회사 코엑스 02-6000-1156, <http://c-festival.com>

## 제12회 일본가요대회 개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는 일본 쓰시마시(対馬市),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제12회 일본가요대회'를 개최한다. 영남지역민을 대상으로 일본가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게스트로 오카다 시노부(岡田しのぶ)가 참가한다. 자세한 시상 내용 등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http://www.busan.kr.emb-japan.go.jp>).

일시 및 장소 5월 30일(토) 14: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쓰시마시(対馬市),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 응모방법

#### 1.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남지역에 재학, 재직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파견이나 일본정부 초청으로 방일한 경험이 없는 자.
- 중·고·대학생 참가자는 6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한 경험이 없는 자.

#### 2. 접수마감 : 5월 6일(수)까지

문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051-410-6123



## 제15회 중·고교생 일본어말하기대회 개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는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이 '제15회 중·고교생 일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영남지역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교육현장에서 말하기 교육을 통한 일본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일한 양국의 상호이해 및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세한 시상내역 및 특전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http://www.busan.kr.emb-japan.go.jp>) 홈페이지 참조.

일시 및 장소 6월 13일(토) 14:00~(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소민홀)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응모자격 • 영남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6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한 경험이 없는 자.
- 일본정부 초청으로 방일한 경험이 없는 자.
- 각 학교 1명

접수마감 5월 12일(화)

문의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중·고교생 일본어말하기대회 담당자

051-464-3554

## 2015 일본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

### 일본무용교실, 샤미센교실, 고토교실, 일본가곡교실

#### 일본무용교실

일본의 전통예술을 배우는 일본무용교실에서 2015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양국의 풀뿌리 교류차원에서 일본무용가 하나야기 순토(花柳春濤) 선생이 자원봉사로 지도한다. 의상 및 소품 등의 관리비 등은 각자 부담한다. 기본적인 수업기간은 1년이며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수강료는 무료.

주최 일본거문고회(日本コムゴの会)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수강신청 및 문의 정미령 010-7244-6294, tanukij@hanmail.net



#### 샤미센 교실

샤미센 연주자 이마후지 다마미(今藤珠美) 선생의 자원봉사로 개최되는 샤미센 교실에서 신규 수강생을 모집한다. 자격 제한은 없으며 1년 코스로 매월 2회 개최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악기는 수업 기간 중에 무료로 대여한다. 단, 악기 관리비 등의 소모품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최 다마미카이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수강신청 및 문의 장규자 010-5387-6641, teeve-no@hanmail.net



#### 고토교실

일본의 전통현악기 고토를 도미모토 세이에이(富元清英) 선생의 지도로 배운다. 수업은 1년 코스로 매월 2회 실시한다. 수강료 무료. 악기는 무료 대여하며 악기 유지비 및 교재비는 개인 부담.

주최 요시오카호가쿠사(吉岡邦楽社)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수강신청 및 문의 4월 20일(월) 마감, 요시오카호가쿠사 한국지부 담당 박혜경 010-2970-0746



#### 일본가곡교실

소프라노 김정령 선생의 지도로 일본 문화를 가곡으로 이해하고 배운다.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도 가능하다.

주최 사단법인 한일여성친선협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수강신청 및 문의 김정령 010-9120-4693, 한일여성친선협회 02-2273-7645

\*자세한 모집요강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에서 확인



## 검극(剣劇) 영화 특집



4월 일본영화상영회는 검객 사무라이들의 처절한 혈투를 그린 검극(剣劇) 영화 특집을 마련했다.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와 일본의 세계적인 명배우 미후네 도시로 콤비의 요짐보부터 야쿠쇼 고지 주연의 2000년대 사무라이 영화까지 명감독과 명배우들이 출연한 걸작 시대극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스토리를 남과 여로 주인공을 달리한 '자토이치(기타노 다케시 감독·주연작)'와 여배우 아야세 하루카를 주연으로 내세운 '자토이치2(원제목: ICHI)'를 비교 감상하는 것도 포인트. 선착순 무료관람.

시간 14:30(14:00부터 입장가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자토이치 座頭市

일시 4월 01일(수), 14일(화), 23일(목) 감독 기타노 다케시

요짐보 用心棒

일시 4월 02일(목), 16일(목), 24일(금)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대보살고개 大菩薩峠

일시 4월 03일(금), 17일(금), 27일(월) 감독 오카모토 기하치

13인의 자객 十三人の刺客

일시 4월 09일(목), 20일(월), 28일(화) 감독 미이케 다카시

자토이치2 座頭市2

일시 4월 10일(금), 21일(화), 29일(수) 감독 소리 후미히코

할복, 사무라이의 죽음 一命

일시 4월 13일(월), 22일(수), 30일(목) 감독 미이케 다카시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일본어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도무지 그 느낌을 표현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다. 기즈나(絆) 그리고 오카에리나사이!

귀국하고 다시찾은 나의 고향. 강산이 한번은 변할 법도 한데 교토는 언제나 시간이 멈춘 듯 모든것이 그 자리.

10여년전 봄, 만화를 공부하기 위해 과감히 첫 발을 내딛은 낯선 땅에서의 시작은 나에게 잊지 못할 많은 추억과 소중한 '기즈나'를 선물로 주었다. 왕벚꽃 나무집 하얀 지팡이 아주머니와의 기즈나.

·하얀 지팡이- 시각장애인 용 지팡이(白杖)

나의 일본인 부모가 되어 주신 교수님 부부와의 기즈나.

'우리는 일본의 아버지 어머니 이무니다.' ...맞아?

한국어  
끄덕~  
끄덕

매년 연말, 한국으로 귀국한 딸에게 보내주시는 애절한 연하장에 가슴이 울컥!

한국의 딸에게  
여기 일본 집에서는  
우리 딸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이 부모는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 돌아오너라.

아... 나를 마치  
먼 도시로 상경한 딸로...  
이것이 바로 기즈나로구나!

직접 재배하신 야채와 먹거리를 한 짐 싸 주시며 언제나 찾아오라시며 문열어 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또 다른 일본인 부모님과의 기즈나.

일본화  
화가

배고플땐 언제든지와. '구이니게'라도 괜찮으니까!

전직  
기모노  
장인

·구이니게(喰い逃げ)-  
밥만 먹고 사라지는  
한마디로 먹튀~ㅋㅋ

매콤한 고향의 음식이 그리지 않냐며 때때로 한국의 식자재를 조달해 주시고

쓰루하시에 다녀 온 김에 최상 생각이 났지~ㅎㅎ

짬!

·쓰루하시(鶴橋)-  
오사카(大阪)의  
코리안타운

일본 교토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신 어느 일본인 아주머니와의 기즈나.

일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일본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아~

·고려미술관- 재일교포 고 경조문 선생님이 설립하신 미술관으로 교토 속 한반도

칠판처럼 반복되는 무료하고 메마른 일상 가운데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누리게 해주셨던 분들과의 기즈나.

와아~

이 일본에서 좋은 추억들만 가져가~

교토시 동물원 사육사 언니와 재일교포 아동문학가 선생님과의 기즈나. 유학 중에 나를 적극적으로 서포터 해주셨던 이러한 기즈나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시 이 지면을 빌어 펼쳐보려 합니다.

오옷! 현정~ 오카에리나사이! (お帰りなさい)

하하하~

그리고 고향 교토에 갈때마다 내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듯 '오카에리나사이'로 나를 반겨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만 가슴이 찡, 눈물이 콧물~

\*기즈나(絆)란 '깊이 어려운 정'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기즈나'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오카에리나사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다 (가다)는 의미. '어서와'라는 뜻.